

水魔 이긴 '위대한 생명들'



지난 11일 구례 양정마을에서 침수된 축사를 탈출해 지붕 위로 피신한 암소가 구조된 직후 송아지를 출산, 젖을 물리고 있다. <구례군 제공>



지난 11일 오후 6시께 경남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난초섬에서 남해군 공무원들이 구례의 한 축산농가에서 사흘간 67km 헤엄쳐 생존한 암소를 구출하고 있다. <남해군 제공>

지붕 위 사투 끝 쌍둥이 출산

구례 양정마을 마취총 구조 암소 주인 "대견스럽다" 눈시울 붉혀

"뱃속 새끼를 살리려고 지붕에서 이틀동안 작각같이 버텼다."

지난 11일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침수된 축사를 사투 끝에 탈출해 지붕 위로 피신했던 6살 된 암소가 지붕 위에서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채 이틀동안 버텼다가 출산, 쌍둥이를 품에 안았다.

지난 10일 하루종일 피부는 폭우로 인근 서서천이 범람하면서 축사에 물이 차오르자 어미 소는 축사를 탈출했다.

물결이 때려가며 버둥거리다 가까스로 지붕 위에 발이 닿았을 터였다. 두 마리의 새끼를 품고 있던 어미 소는 더는 때려가자 않으려 굳게 서서 매섭게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질 때까지 꼬박 이틀간 먹이 한 줌,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약작갈이 버텼다.

비가 그치지 사람들이 몰려와 지붕 위에 함께 있던 다른 소를 구조하기 시작했지만 이 어미 소는 꾀죽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의 손을 거부하며 끝까지 지붕 위를 지키려 해 구조대는 결국 마취 총을 쏘야 했다.

마취 약에 취해 방새 뽕뽕해 하던 어미 소는 모두가 잠든 시각, 홀로 깨어나 그제야 두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지치고 힘든 몸으로 출산하느라 마지막 남은 힘까지 짜냈을 어미 소이지만 새끼 걱정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

잘 마른 건초가 놓인 축사 한쪽에 새끼가 웅크려 있자 무사한지 살펴보려는 듯 다가와 냄새를 맡아보거나 혀로 핏줄주며 모성애를 드러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주인 백남례(61) 씨는 안쓰러운 마음에 눈시울을 붉혔다. 백 씨는 "이 녀석이 지붕 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면 너무 안쓰럽다"며 "살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쌍둥이까지 무사히 출산하다니 너무 대견하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사흘간 섬진강 60km 헤엄쳐 생존

구례 암소 '생존수영' 남해서 구조 귀표번호 추적 확인 주인 품으로

수해를 온 몸으로 이겨낸 우직한 소들의 감동 스토리가 화제다. 축사 침수로 몰살에 휩쓸려간 소들이 사흘간 수십km를 '생존 수영'으로 버텼다가 극적으로 구조돼 주인 품으로 돌아간 이야기들이다.

12일 구례군과 광양시·남해군 등에 따르면 구례 축산 농가의 소들이 수십km 떨어진 남해와 하동에서 잇따라 구조됐다.

남해군은 지난 11일 오후 6시께 고현면 갈화리 난초섬(무인도)에 표류하고 있던 암소 1마리를 구출했다. 이 소의 귀표번호를 조희한 결과 구례읍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16개월 암소로 확인됐다.

이 암소는 지난 8일 오전 10시50분께 집중호우로 구례 서서천이 범람하면서 읍내가 모두 물에 잠겼고 축사 또한 침수되면서 표류했다. 암소는 섬진강 물살을 따라 헤엄치다 난초섬에 다

다른 것으로 보인다. 구례에서 남해 난초섬까지는 67km에 달한다.

남해군은 바지선을 빌려 이 소를 갈화리 마을 축산농가로 옮겨 치료한 뒤 주인에게 돌려줬다.

구례읍 봉동리의 한 축산농가 암소 1마리도 전날 50여km 떨어진 경남 하동 섬진강 하구에서 구출돼 주인에게 넘겨졌다.

남해 난초섬과 하동에서는 홍수의 거센 물살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은 소들(구례 축산농가)도 발견되고 있다.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섬진강 둔치에서는 젖소 한 마리가 구조돼 주인 품에 안겼다.

이 젖소는 남원시 송동면의 한 농장에서 사육 중인 것으로 섬진강을 따라 60km를 헤엄치다 탈진 상태에서 극적으로 구출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먼 거리를 헤엄쳐 광양까지 온 소가 건강한 상태로 농장주에게 인계돼 다행"이라며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농가들에 한 줄기 희망을 주는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맞벌이 부부 양육 걱정 덜어

곡성군은 민선 7기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공약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소득에 따라 시간당 기본요금 중 85%는 정부(국비, 도비, 시군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15%는 본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평균 소득 수준이 도시 근로자에 비해 낮아 본인부담금이 말 그대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에서 10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경우 100%, 중위소득 120% 이하는 60%, 중위소득 150% 이하는 50%를 지원하며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면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가정은 셋째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현재 곡성군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3가구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가정은 29가구에 달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맞아 맞벌이 가정에 양육 공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부담금 지원이 돌봄서비스 요금 부담을 해소해 일과 양육의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고흥군, 횡단보도에 그늘막 버스승강장 선풍기 설치도

고흥군은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횡단보도 등 신호를 기다리는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16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폭염 속 버스 이용객들의 더위를 덜어주기 위해 다수가 이용하는 읍·면 소재지 버스승강장 18곳에 선풍기를 설치했다. <사진>

평소 그늘막과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 A씨는 "폭염 속에서 더위를 잠시라도 피할 수 있게 배려하는 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그늘막과 버스승강장 선풍기의 바람으로 주민들이 잠시나마 무더위를 피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폭염이나 혹한기 대비 대중교통 이용 등에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여수 로컬푸드 직매장 2곳 더 늘린다

문수동·여천동에... 공모사업 지자체 2곳 선정은 전국 유일

여수시가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국비 공모사업에서 전국 14개소 가운데 유일하게 2개소가 선정돼 국비 6억5000여만원을 지원받는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사업대상지는 여수농협과 여수원협으로 문수동과 여천동에 들어선다.

30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로컬푸드 직매장 공모사업은 부지 적격성, 입지조건, 직매장 운영계획 등 1차 서류평가와 현장

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여수시는 공모를 통해 국비 5억3000만원, 도비 1억51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6월 추경으로 시비 3억5200만원을 확보했다.

여수시에는 여수농협 양지점·우두점, 여천농협 죽림점·학동점 등 총 4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800여 농가가 연간 150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농산물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여수=김정화 기자 chkim@kwangju.co.kr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국비 공모 사업에서 여수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2곳이 선정됐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건 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매매가 : 48억**
- 건 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매매가 : 61억 조정가**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매매가 : 29억 5천**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 의료시설**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건물 : 9059.72㎡(2740.6평)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 공 장**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건물 : 3334㎡(1008.5평)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건물 : 1296㎡(392평)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 공 장**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건물 : 586㎡(177.3평)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 공 장**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건물 : 451.1평 **최저가 (70%) 7억2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